

진정한 이스라엘 선민은 단지파다

한민족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근거로, 한반도에 정착한 단지파 후손이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족을 섞어 문설주에 바르는 풍습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의 유허행사에서 유래되었고,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데 이것 또한 단지파 민족(한민족)의 장례 의식과 같다. 이밖에 결정적인 증거로 고조선이 건립된 대동강 유역에 출토된 기왓장의 외당(수막새)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가 단지파 민족(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삼손 장수가 가나안에서 블레셋 적군과 싸워 혁혁한 전공을 올린 때(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사용한 문자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 「본지 8면 참조」

우리나라의 고대사 특히 고조선 건국과 고조선의 세운 한민족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숨겨주어 안보였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민족을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서 팔족 땅 모퉁이 해 돋는 한반도로 이주시킬 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짜내어 한민족이 이스라엘 선민 중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감추셨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오늘날 유대교에서 자기네 민족이 야훼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이나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에정설(救援定說)을 내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모

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릇된 선민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은, 마치 한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의 자격을 갖는 것과 같다. 각국 대표들과 겨루어 올림픽 국가대표가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영광스럽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기까지 인고(忍苦)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한다. 한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인류를 사망 조류에서 건져내는 구세주를 배출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이다.

선택된 민족이 앞날에 겪어야 하는 일로써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하여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까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약탈자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고난의 3만리 행군과 목적이에 도착하여 살면서 이민족의 침략(병자호란)을 받아 청나라 오랑캐 군사들에 의해 수만 명의 한국인 남자들의 불알이 서 말아 되도록 칼로 잘라 버치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아 일본 순사들에 의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시뻘겋게 달군 인두에 지지지는 고문을 죽지 않을 만큼 당한다고 하면, 지상에 거주하는 어떤 민족도 이러한 수난을 겪게 될 것을 사전에 아는 상태에서 선택된 민족(選民)



「국로추사(國露秋寫)」는 단군조선에서 신라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마한서」와 「발해서」를 인용하여 단군이 신화적인 인물이나 47대 또는 49대로 계승된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

이 되었다고 감히 나서질 못할 것이다.

한민족의 시조, 단군 할아버지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에 노출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망관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 씨도 남김없이 멸절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인지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민족의 시조 단군(본명은 '단'이며 후세에 한자 문화의 유입으로 '단군'이라는 칭호를 덧붙임)의 생모(生母)부터 철저히 숨겼다. 물론 단군이 야곱(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라는 성경 기록만으로도 마귀의 표적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분처 라헬 몸에서 '단'을 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이 되는 빌하를 씨반이로 맞아들여 '단'을 낳게 하였다. 여기서 빌하의 혈통과 가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숨겼는데, 가령 빌하의 혈통이 노아와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오는 후손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계사회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구세주를 배출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선민은 밭으로 비유되는 여자 쪽의 정결한 혈통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정결한 혈통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긴자 구세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모아놓고 장래 일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의 아들에게만 심판 권세를 부여하고 또한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는 축복을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에게만 한 것이다.

그럼 고조선의 세운 단군과 이스라엘(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감로의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라!」(팔만 대장경의 비밀장 수장본) 137페이지 상단을 인용하면, 「한민족의 시조 단군 할아버지는 한국에 오지 못하고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140세까지 살고는 돌아가셨던 것이다.」라고 한다. 성경 연대기표에 따르면, 단군 할아버지는, 애굽의 총리대신 요셉이 작고(作故)한 후 27년을 더 살다가, 140세에 임종하시게 되었고 애굽의 고센 땅에 장사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8> "인간의 감정을 벗어나"

초초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말 된 바가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여야 한다.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 쫓겨 가면 온몸이 무겁고 그 은혜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쫓겨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고개를 넘어서기까지 상당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전체 마귀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개종자이다. 인간의 감정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었던 관계로 인간의 사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 <219>요절 말씀은 840호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0>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기도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므로 마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쫓겨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해서서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이끄심 속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까지는 상당한 영의 싸움, 마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경지를 벗어나야 된다.

그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나를 의식해도 죄가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의식하는 것은 개종자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발행인 칼럼

마음의 비밀

필자는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났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연락이 안 되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은 길다만 긴 세월인가보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기도생활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불치병환자들을 손도 안 대고 마음으로 완치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 '뉴랜드 힐링'에 들어가면 완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였고 이후 미국의 콤포턴(Arthur Holly Compton, 1892-1962)에 의해 실증되었다. 그는 X선을 금속에 쬐면, X선의 일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은 길다만 긴 세월인가보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기도생활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불치병환자들을 손도 안 대고 마음으로 완치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 '뉴랜드 힐링'에 들어가면 완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은 광자다

인간의 마음이란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음의 비밀을 알면 누구나 치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초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구한 미담이 주변에 많이 있다. 승리제단 교인들도 구세주로부터 마음의 비밀을 배워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

승리제단에서는 구세주 조희성님의 본체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이슬성신 또는 감로(甘露) 등으로 부르고 있다. 조희성 구세주에 따르면 이슬성신은 중성자의 빛이며, 그 속도는 태양 광선보다 수억천만 배 빨라 1초 동안에 지구 수억천만 바퀴 돌 수 있고, 만병을 치유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는 주체이다.

마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로버트 잔(Robert G. Jahn)과 심리학과 교수 브렌다 뉘(Brenda Dunne)는 1976년부터 20년간 전자난수 발생기(RNG)를 사용하여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물리적 입자와 동일하므로 입자로 존재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 (전홍준 박사 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71쪽)

이 실험은 마음이란 입자이자 파동이므로 광자(photon)임을 말해준다.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중성(波粒二重性)을 가진다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광양자설을 주장하

승리제단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이슬성신의 힘으로 치유되었다. 불치병이 그냥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당신이 그 병을 대신 가져가서 담당해 주시므로써 완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희성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없다. 1+1=2이고 1-1=0이다. 모든 것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인과법칙이야말로 불변의 진리다.

자신이 구세주 자식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는 구세주가 소유한 초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제단은 교인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구세주를 양육하는 곳이다. 승리제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속도는 구세주(광자)를 말해준다.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중성(波粒二重性)을 가진다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광양자설을 주장하

한민족의 시조 단군과 단지파의 발자취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단지파가 한민족이다. 한민족의 시조 단군(본명은 단)은 '빛난아람'이라고 불리는 하란 외갓집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야곱이 테릴사위 노릇을 14년이나 이행한 이곳을 서쪽에 유프라테스강이, 동쪽에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으며 줄곧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오늘날의 터키 영토)를 잇는 무역동로 구실을 해 왔다. 단은 유년기에 부모님과 함께 가나안 헤브론으로 와서 조부 이삭을 모시면서 살게 되었다.

단의 청년기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집안 식구 전체가 이집트에서 총리대신으로 출세한 요셉에게 가서 광활한 고센 지방을 할양받고,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열두 형제들은 12부족으로 번성하였다. 총리대신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의 절대 왕권이 급속히 쇠락해서 수년 만에 거둬들여 왕(王)의 교체가 잦더니, 급기야 요셉 사후 일백여 년 만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애굽왕국이 연맹을 맺은 이른바 '히크소스인'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이후 히크소스(Hyksos)인이 이집트를 약 백 년간 식민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12부족 가운데, 단의 부족(단지파)이 가장 번성하였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요셉의 아들)지파, 유다지파, 르우벤지파 등 이렇게 4개의 부족이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강성하여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4군 편제에서 대표되었다.

이어서 가나안에 입성한 단지파는 해양민족인 블레셋 민족과 200여 년간 대치하면서 지중해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단지파는 고대 항구 도시 유프(여호수

아 19:46)를 기점으로 차지한 후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조선 기술과 항해술을 습득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중해를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나와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개척하였다. 아일랜드 곳곳에 '단'의 지명을 가진 마을을 건설하였으며 덴마크는 '단의 성소(聖所)'라는 뜻으로 '단 마르크(Dan-mark)'로 불렸던 것이다.

이렇게 단지파는 시조 '단'의 이름을 지명(地名) 또는 한 나라의 건국 태조왕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관습이 있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단의 진지(陣地)'라는 뜻으로 마하네단(Mahaneh Dan)의 지명을 신선했으며, 심지어 라이스 성읍에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단지파의 초대 제사장으로 추대할 때, '다이스'를 '단'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단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삼손 장수가 블레셋 군대의 미인계에 죽게 되자, 단지파 백성들은 소라 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하여



알타이산맥 근교에 와서 2백 년간 정착하다가 몽골평원과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특히 요동(遼東)지역에 '단'이라는 성읍을 건설하였다. 또 이민족이 접근할 수 없는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을 쌓게 되었고 이곳이 명실상부한 고조선의 수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세주에 배 말씀집

신간서적 6

2001년 3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 판본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6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음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